

#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결핵)

편 집 부

이 글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간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중에서 결핵부분을 옮겨 적은 것임.

-편집자 주-

##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 폐결핵이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큰 병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다. 머리 속에 큰 병을 그리고 있던 환자들 중 일부는 크게 다행하다고 느끼지만, 일부는 오진을 떠올리며 더 큰 근심에 휩싸여 제2, 제3의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한다.

일전에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젊은 남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다. 세상의 온갖 번뇌를 혼자 싸안고 있는 듯한 표정의 그는 진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

슴X선을 찍으로 왔다고 했다. 이리저리 물어보아도 가래에 피가 나오니 X선을 찍어 달라는 말뿐 묻고 대답하는 것이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환자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단 가슴 X선을 찍어보니 정상이었다. 그러자 환자는 실망스런 표정으로 이미 보건소와 병원 등 세군데를 다니며 검사를 했는데 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이제는 큰 대학병원에 가 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결핵에 걸렸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환자와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물론 초기 기관기결핵의 경우에 가슴사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핵은 가슴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결핵 외에도 많이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던 차에 코피가 났고 다음날 가래를 뱉는데 피가 섞였던 것이었다. 설명을 듣고 진료실을 나서는 그는 계면찍어 했으나 얼 굴 표정만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래에 피가 섞이면 제

일 먼저 폐결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가래에 피가 나올 때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등의 기관지 질환이고, 폐암도 제법 흔하며 심장병에서도 올 수 있다. 이 밖에도 폐전색증 등 몇몇 드문 질환에서도 피가래가 나올 수 있고, 목감기가 심할 때에도 피가 나오는 수가 있으므로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폐결핵이 많고 폐암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가래에 피가 섞일 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에게 본인이 느끼는 이상을 충분히 설명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폐질환이 주요 원인이 대기오염과 흡연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원인을 없애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제 결핵예방주사는 불필요하다

얼마전의 일이다. 30대 초반의 주부가 찾아와 결핵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몇 년전에 결핵을 진단을 받아 약을 먹었는데, 요즘 몸이 그때처럼 이상하다고 했다. 검사결과 그 주부는 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핵약을 충분한 기간 동안 먹지 않고 중단했기 때문에 재발한 것이었다.

환자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모두 결핵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남편은 걸리지 않았으나, 4살 먹은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은 결핵반응검사(일

명 튜베르쿨린 검사)가 양성이었다. 어깨에 결핵예방주사(비씨지 주사)흉터를 찾아보았으나 두 아이 모두 없었다. 어린애들이 결핵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결핵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셨어요?'하고 물어보았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다. 실은 자신과 자기 남동생도 모두 어릴 때 결핵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둘다 결핵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결핵은 예방주사를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름대로의 확신에 따라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것이다.

옛날에는 결핵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결핵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이다. 전국적인 결핵실태조사에 따르면, 엑스선 촬영에 의한 진단으로 결핵에 걸려 있는 사람이 1965년에는 인구 100명당 5.1명이었는데, 1980년에는 그 절반인 2.5명으로 줄었고, 1990년에는 1.8명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결핵에 걸린 사람이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55명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 중 한 명은 결핵에 걸려 있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핵이 줄어든 데에는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좋은 결핵치료약이 나왔다는 이유도 있지만 결핵예방접종이 큰 기여를 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씨지 접종을 받은 사람이 1965년에는 인구 100명당 24.3명이었는데 반해 1990년에는 86.0명으로 늘어났다. 결핵이 줄어든 만큼 많은 사람이 결핵예방주사를 맞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 네살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비씨지 접종률이 100명당 78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명당 22명은 부모들이 비씨지를 맞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이 비씨지를 맞히지 않는 이유는 앞서 필자가 진료한 어머니와 같이, 주위에서 비씨지를 맞혀도 결핵에 걸린 경우를 보면서 비씨지를 맞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핵예방주사인 비씨지는 지금까지 6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182개국에서 결핵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한 가지 단점으로 결핵에 대해 100% 방어력이 없다는 점이다. 대개 60~75% 정도의 사람에서 결핵에 대한 방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핵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두다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비씨지를 맞고도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결핵예방주사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비씨지는 어른들보다는 소아에서 예방효과가 더 좋다. 소아에서 결핵에 걸리면 결핵성뇌막염이나, 전신으로 퍼지는 속립성 결핵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결핵

으로 되기 쉽다. 비씨지는 소아에서 이렇게 심한 결핵으로 되는 것을 잘 방어해 주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생후 가능한 빨리 비씨지를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서 말한 주부의 두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결핵에 전염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1년동안 결핵약을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경우였다. 비씨지 접종을 받지 않은 대가로 결핵성뇌막염에 걸리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 가야 하는 어린이들을 병원에서는 종종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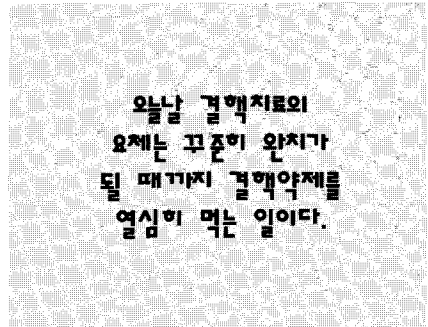
## 결핵에 걸리면 잘 먹고 푹 쉬는 게 치료법

결핵에 걸린 환자가 매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진료실에서 결핵환자를 보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처음 결핵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여러가지 견디기 힘든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결핵의 심각성과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처방을 받아 며칠 정도는 약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약용량이 많아 한번에 다 먹으려면 힘이 들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약을 먹다보니 소화도 잘 안되고 속도 불편하여 푹 쉬고 잘 먹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약 먹는 것을 중단하고 지내다가 자꾸만 몸이 더 안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폭 쉬고 잘 먹는 것이 약물치료보다 더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사라지지 않고 주요질병 중의 하나로 꼽히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원시인의 유골에서도 결핵을 앓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결핵의 역사는 매우 길며 그 긴 기간 동안 인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에 항결핵 화학치료를 실시하게 되면서 거의 불치의 병처럼 생각되던 결핵이 치료되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결핵치료를 해온 나라들에서는 결핵의 발생이 줄어들었다. 얼마 전만 해도 '결핵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결핵이 심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하면 결핵감염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1965년에는 30세 미만 인구의 44.5%가 결핵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1990년에는 27.3%로 감소하였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전반적인 영양상태나 주거환경 등이 좋아지면서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하고, 결핵균의 전파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고, 또 국가가 주도가 되어 결핵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결핵감소에 있어서 결핵치료제의 도입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폭 쉬게 하는 것이 결핵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그렇게 권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물치료와



동반되어서 권유된 것이고 그나마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쓴다는 것은 결핵치료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양섭취를 잘 하는 것도 결핵치유를 촉진시킨다고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정도의 영양만 취하면 된다고 한다.

해방 이후나 6·25 전쟁후와 같이 이렇다 할 약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하고 좁은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내던 시절에는 결핵이 매우 기승을 부렸다. 그리고 그 때는 잘 먹고 일을 덜하는 부유층보다는 잘 못먹고 노동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핵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결핵에는 잘먹고 폭 쉬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불변의 진리처럼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핵을 퇴치시킬 수 있는 좋은 항결핵약제들이 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많이 좋아졌다. 오늘날 결핵치료의 요체는 꾸준히 완치가 될 때까지 결핵약제를 열심히 먹는 일이다. †